

과기원 공동연구단 - (주)뉴로그린, 난치성통증 분야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난치성 만성통증 진단 및 비약물적 치료법 개발 위한 협력 기대



▲ 과학기술원 난치성통증 연구단(연구단장 의생명공학과 정의헌 교수)이 지난 18일 (주)뉴로그린(김선광·정지훈 공동대표)과 난치성통증 분야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뉴로그린 정지훈 대표, 정의헌 연구단장, (주)뉴로그린 김선광 대표

4개 과학기술원과 전남대·연세대 등 주요 병원 연구진으로 구성된 '난치성통증 연구단(연구단장 의생명공학과 정의헌 교수)'이 바이오제약 분야 스타트업인 (주)뉴로그린(공동대표 김선광·정지훈)과 난치성통증 분야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4월 18일(월) 난치성 통증 연구단 연구진과 (주)뉴로그린 공동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스트 의생명공학과 '이종현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난치성 통증 분야의 연구 교류 △관련 분야 우수 인재 양성 △제품 개발 및 기술자문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지스트는 광주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4개 과학기술원 공동연구프로젝트(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 '난치성만성통증극복기술개발' 사업이 선정돼 연구단을 구성하고 2020년 12월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68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스트를 주관기관으로 KAIST, DGIST, UNIST, POSTECH, 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등에서 13명의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뉴로핏, (주)비스놉, 특허법인 웰이 참여기업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난치성통증 연구단은 난치성 만성통증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신경교세포 조절을 통해 기존 약물적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밀신경조절 기반의 비약물적 치료법을 개발하여 새로운 통증 진단 및 치료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뉴로그린은 뇌영상, 뇌파 및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뇌신경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을 통해 연구단과 산학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단장인 정의헌 교수는 "(주)뉴로그린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첨단 신경과학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난치성 만성통증 연구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의생명공학과 권혁상 교수, 김형일 교수, (주)뉴로그린 김선광 대표, 정의헌 연구단장, (주)뉴로그린 정지훈 대표,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학과장, 김태 교수